기본소득, 대학원에서의 첫 만남과 그 이후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나는 열 살 무렵부터 서울 안의 큰 섬에서 자랐다. 대자연 속의 섬이 아니라 서울 안의 콘크리트 섬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나를 포함한 주변 친구들은 모두 그곳 아파트처럼 규격화되고 협소한 우리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계급상 매우 동질적이었던 아파트촌에서 바라본 세상은 큰 문제가 없었다. 다들 그랬듯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80년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새롭게 보게 된 세상은 아주 문제가 많았다. 특히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는 더더욱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불완전하였고 세상의 변화는 실망스러웠다. 이런 변화에 제대로 일조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더해져 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집안의 기대에 맞춰 심드렁하니 진행했던 대학원 진학이 도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기본소득을 나에게 처음 소개해준 사람은 우리 사회학계에도 계급 이론가로 잘 알려진 에릭 올린 라이트였다. 그를 지도교수로 만난 것도 우연이었다. 원래는 뉴욕시에 있는 사립대학에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가 있는 중서부의 주립대학에 자꾸 눈이 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 알려진 대학보다 사회학과가 좋은 대학이 더 좋다고 우기며 마지막 순간 학교를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 되돌아보니 그 순간이 나의 삶이 바뀌게 된 중요한 계기였던 듯하다. 분석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그를 만나 진보적 사회과학이론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나는 이전의 나와는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품은 사람이 되어갔다.

에릭은‘모순적 계급 위치,”다중착취’등의 개념을 통해 현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구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분석틀의 유용성을 밝히는 데 성공한 만큼, 그의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는 착취의 개념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는 '억압'과 대비되는 '착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억압자는 대량 살육과 같이 훨씬 더 잔인한 폭력을 피억압자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착취자는 피착취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그런 권력의 행사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착취에는 억압에는 없는 '비열한' 무언가가 있는데, 피착취자의 급격한 물질적 상황 개선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피착취자의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다면 돈을 벌기 위해 더 이상 착취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물적 박탈 상태, 혹은 물질적 어려움을 지속, 심화시킴으로써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종종 저질의 윤리적 의식상태를 가져오게 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예산부족 같은 실질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정치적'인 이유에서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이는 기본소득의 도입은 아마도 자본가가 가장 바라지 않는 사건일 것이고, 또한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본주의 국가가 선뜻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기본소득의 도입은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자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일 수 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 상태에서 청소 등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과정과 환경을 개선하고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를 전공하던 내가 기본소득에 매료된 것은 그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난 후이다. 노동공급이 항상 수요를 초과하는 저기술 저임금노동자에게 시장에서의 교섭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불필요하고 주제넘은 추정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간결하고 효율적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실제로 실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제도처럼 다가와서 더더욱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개념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이 형성될 수 있을까. 아마도 백 년쯤의 시간이 흐른 뒤라면.

기본소득은 나의 학부 [사회정책]과 대학원 [사회정책연구] 수업에서 항상 다루어졌지만, 그렇게 큰 호응을 받던 주제는 아니었다. 나는 운 상쇄 평등주의자의 관점을 일부 공유한다.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 의해 발생한 불평등

은 상쇄되어야 마땅하며,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드물다. 재능이야말로 자연의 선택에 의한 '운'의 결정체이며, 끊임없이 그 재능을 갈고닦으며 노력하는 자세 역시 그런 노력이 보상받는 것을 목격하고 자극받을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환경에서 자랄 때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특성이다. 기본소득은 이런 운의 불평등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이 의제가 본격화되는 빠른 변화의 속도가 놀랍고 반갑다. 이번 학기 수업이 기대되는 이유이다.